

대행 스님

일거수일투족 그놈이 하는 것이니 오로지 한군데다 몰락 놓으라

믿고 놓는다 함은

질문 관법 공부에 이제 인연이 되었는데 믿고 놓는다 함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놓아야 하는지요.

답변 처음에 여러분한테 "자기 주처에 몰락 다 놓아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구요.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 번, 스무 번, 백 번을 해도 그게 감지가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하고 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론돼야 하는 게 어떤 것을 믿고 놓아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게 뭣고.' 한다면 벌써 늦습니다. 길을 가기가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자기 불성이 없다면 움죽거릴 수도 없고 형성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불종자가 없다면 어떻게 형성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로 나에게 주처가 있고 그 주처가, 바로 내 불성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놈이 하고 다니니까요. 그게 바로 선장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그 선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기초가 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그놈이 하는 거니까 오로지 한군데다 몰락 놔야죠. 그놈한테다 놓는 그 작업이 오로지라야 됩니다. 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게 될 때, 몰락 놓아서 알게 되는 그때에,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온갖 집착과 모든 거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나를 찾는 한편, 그 나를 찾는 과정 속에서 욕심과 집착, 그런 건 다 놓고 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면 '아하, 참 여여하구나.' 하는 걸 편안하게 알게 됩니다. 깨치고 안 깨치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참 편안하게 살겠구나.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냐, 생각 아닌 한생각이냐 그게 차이점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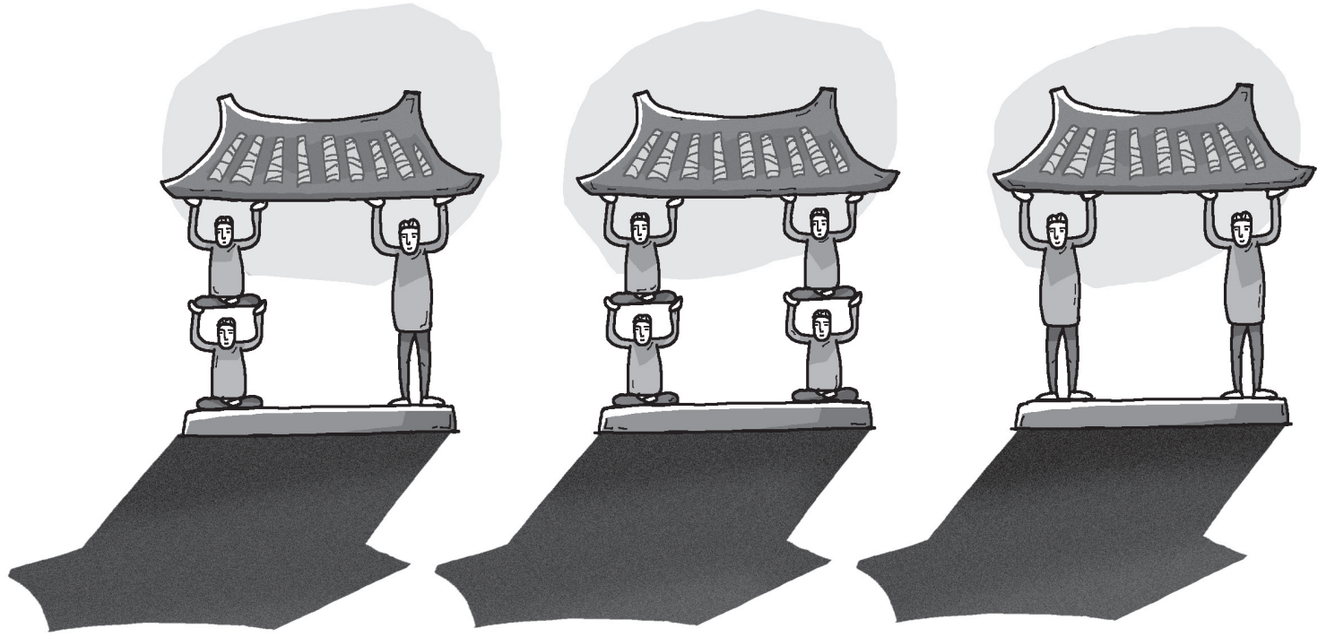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으니까 양면을 다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양면을 다 놓게 되면 '아, 이게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고 내가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 세상 만사 살아나가는 게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기에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갖추어져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게 편안하고 여여하게 들여지고 내지는구나.'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놓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편안하게 들이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눈도 한 번 깜박거리지 않고 떳떳하고 여여하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지 않을 때는 떳떳하고, 다가올 때는 바둥바둥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대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하고 다 놓아야 한다 이 소립니다.

인생의 고비가 생길 때

질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 요즘 저는 경제적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려고 그러십니까. 그 고비를 넘기려면 이 세상 끝 간 데 없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제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모든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사량으로 '이건 절대로 못 한다, 이거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 한다.' 이렇게 결정 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할 거든지 나쁜 거든지 좋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한 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야,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거,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